

# 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 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.

## 제 목 : 「2018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」 호남지역 예선대회 개최 결과

- 「2018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」 호남지역 예선대회가 6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7월 25일(수)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(본부장 이정)에서 개최되었음
- 대회 결과, **최우수상**은 전남대학교 「신의 한 수」팀, **우수상**은 조선대학교 「금리가 살아있다」, **장려상**은 전북대학교 「최종병기」팀이 각각 수상하였음
  - 수상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표창과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최우수상팀은 8월 14일(화) 한국은행 본부(서울)에서 개최되는 전국 결선대회에 참가할 예정
  - 수상팀 학생들에게는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시 서류전형 우대 혜택을 부여
- 참가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경제이론을 경제정책에 실제 적용해 보는 훈련을 통해 최근 경제상황 및 통화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였음

※ 자세한 내용은 “붙임” 참조

문의처 :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 과장 정서림

Tel : 062)601-1116 Fax : 062)382-8164 E-mail: gwangju@bok.or.kr

“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/gwangju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

(붙임)

## 「2018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」 호남지역 예선대회 개최 결과

□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7월 25일(수) 「2018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」 호남지역 예선대회를 개최하였음

— 이번 대회에는 광주·전남·전북지역 소재 5개 대학의 6개 팀\*이 참가

\* 광주지역 : 전남대(1), 조선대(1)

전남지역 : 목포대(1)

전북지역 : 군산대(1), 전북대(2)

— 참가팀들은 국내외 경제현황 전반을 종합분석하고 그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한 이후 심사위원 질의에 답변

□ 최우수상은 전남대학교 「신의 한 수」팀, 우수상은 조선대학교 「금리가 살아있다」팀, 장려상은 전북대학교 「최종병기」팀이 각각 수상하였음(세부내역은 <별첨 1> 참조)

— 수상팀에 대해서는 상금(최우수상 250만원, 우수상 200만원, 장려상 150만원)과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상장이 수여되었으며 수상팀 학생들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당행 신입직원 채용시 서류전형에서 우대

— 또한 최우수상 수상팀은 오는 8월 16일(목) 한국은행 본부(서울)에서 개최되는 전국결선에 참가

□ 참가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경제이론을 경제정책에 실제 적용해 보는 훈련을 통해 최근 경제상황 및 통화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였음

<별첨 1>

### 호남지역 예선 수상팀

	학교	팀명	참가자
최우수상	전남대학교	신의 한 수	오정수
			정윤영
			김설규
			황경민
우수상	조선대학교	금리가 살아있다	강다희
			신명환
			이승주
			이재욱
장려상	전북대학교	최종병기	김병기
			안인식
			정영두
			오지은

<별첨 2>

## 통화정책 경시대회 호남지역 예선대회 모습



< 본부장 개회사 >



< 발표장면 >



< 질의응답 >



<최우수상>



<우수상>



<장려상>